

五月一日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八月九日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十一月十一日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十二月十三日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十四日十五日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十六日十七日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二十二二十三	模範實業	模範實業	模範實業
金澤	大垣	岐阜	名古屋
補助使	補助使	補助使	補助使
田永福	田永福	田永福	田永福
田永福	田永福	田永福	田永福

下外務長官一行

二十一日壽府向發

予定に會議の韓國代表
連同 趙正世 韓國政府の
鑒察決定員 北村 吳持烈等
口三 佐田四郎 朴一、い
出 派遣の決定되어 開會
議首席代表 下學泰外務部長
官外 一行七名は 二十日午
後四時半 東京 羽田港に
二輛ハジ機關車 東京側より

ア スタイオン 芝罘にて
待 午後七時 芝罘
田發 あり 芝罘ハ機關車
マロ 向하여 予定に
二十三日 到着す 予定に
行。

그리고 韓國代表團一行은
다들고 있다.

首席代表 下學泰、代表

林炳燮 兩代表가 直接 平
 系一李壽榮, 補佐官(通譯
 關係一崔延雨, 秘書官(書
 信通格一韓有東, 秘書官
 國務一孫秉植, 國文書記者
 柳浩龍, 國文타이피스트
 李柱範, 諸氏
 그리고 美國에서 梁裕榮,
 아 주기를 要請하였다.

社告

本紙面十一段制를斷行하면서

本社 工務部에서는 本紙面 擴張을 刷新을
 하여 四四四 研究中이던 바 그成案을 完
 成으로 이제 本號부터 紙面 十一段을 斷行하였
 습니다. 곧, 從來 本紙本文에 使用하던 活字는
 吾 新開活字로는 適當하지 않을뿐 아니라
 스핀스의 節約과 紙面 兩기의 便宜를 위하여
 約七五五 活字를 使用하며, 一段 十三字, 六十
 行, 一面 十一段으로 하였는데 從來에 比하면
 九段인 것이, 二段 增加되었으니 一段 五十六行
 이던 것이 每段 六十行으로 되고 全體적으로
 보면 四千字以上 日 收載하게 되었습니니다. 內容
 의 充實도 固하여 銳意努力中이오니 讀者諸位는
 倍前의 指導와 愛護로서 愛讀하여 주시기 바
 람합니다.

『福音新聞』의新題字카트

本紙의 이제까지의 題字카트는 圖面이 너무
 좁고, 字體와도 調和가 잘 되지 않은 感이 있
 었으며, 그 位置도 社說의 量에 따라 中央에
 놓이지 않고 左右로 移動되고 있었으나, 今號부
 터 採用한 新作한 카트는 字體의 劃이 整齊되
 어 있으며 그 位置도 一定不變하게 하였으니
 今後는 一층 視覺上的 效果를 나타낼 것으로
 믿고 바랍니다.

福音新聞社

먼저 어머니의 사랑의 품
 에서 떠나는데서 시작하는
 것이라 하고 할수있고 따라서
 타락하고 방랑하던 젊은이
 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
 오는 심정의 범죄한 인간
 이 하나밖에로 돌아오는
 심정과 꼭 같은 것이라
 할수 있으니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머니를
 존중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어머
 니를 기쁘게 하는 심정으
 로 이끌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있어서 『어머니』
 이 중대한 의의(意義)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日本の“新興宗教”等

宗教減半 認證制로된 法人法으로

난 所謂新興宗教는 雨後の
 竹筍과 같이 簇出하여 그
 中에는 宗教의 實을 쓴
 營利的인 團體도 없지 않
 았는데, 이것은 일본의 新
 憲法에 의한 信敎의 自由
 政敎分離의 行政上的 變革
 과 届出만 하게 되어 있
 던 制度上的 理由에 因한
 것이었다. 그 數를 보되
 라도 戰前 四十餘이었던
 宗教團體가 旧宗教法人令에
 의하여 七百餘에 増加되고
 非法人宗教團體를 加하면
 一千餘에 達하고 그 包括
 社寺, 敎會는 全國에 二十
 萬이 넘었다 한다. 그런데
 一九五一年四月三日 새로이
 認證制에 의한 『宗教法人法』
 이 制定되어 從來의 宗教
 團體는 全部 認證申請을
 하여 新法令에 의한 法人
 으로 變更하게 되어 있어
 늦어도 지난 四月二日까지
 에 手續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結果는 旧法
 人令에 依한 宗教團體가

人格破産

主筆

우리는 개나 도야지로
 태어나지 않고 뱀이나 벌레
 로 태어나지 않고 태어난
 것이 참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랑과 행복은 우
 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가 만일 네 말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었다면, 땅처럼 땅에 불
 어 다니게 되었다면 얼마
 나 기막히는 일일까 어찌
 사람들은 사람도 네 발로
 기어다니 시대가 있었고,
 어리매가 기어다니는것은
 그유적이라고 하지마는 우
 리는 그파워 말을 믿지않
 는다 사람은 본시부터 하
 늘을 향하여 우뚝 서서
 걸어나는것이 그 본성이
 요 자랑거리다.
 세상에 가장 맑고 위엄
 한것은 「사람도 한 동물이

과」는 생각이다 사람은
 동물이면서 또한 동물이
 아닌데 사람다운 본성과
 같이 있는것이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동물의 지위
 에 떨어뜨려준데도 분하기
 가 욕이 없을텐데 왜 사
 람이 스스로 동물이 되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지」 과연 서서 다닌다고
 사람이 아니요 말을 한다
 고 사람이 아니다 서서 다
 니고 말을 한다는 생명이
 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이 없고 사
 람다운 맑은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람게 스스로 서서 어엿하
 게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
 하는것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제가 사람의 지위에서 멀
 어져서 짐승노릇을 하는자
 가 많하 「인격파산」을 당
 한자가 많다 옛날 삼손이란
 장군은 죄를 짓고 인자못
 들을 끌고 돌아가는 짐승
 노릇을 하였다. 현대문명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고 공
 산주의는 사람을 노예와
 짐승을 만든다.

七二〇이던 것이 約半數인
 三七〇으로 減少되었다 한
 다. 여기에 宗教團體라 함
 은 所屬社寺敎會를 包括하
 는 宗派別, 中央團體, 本部
 或은 本산에 該當되는 것
 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敎別 內譯은 다음과 같다
 (括弧內는 旧法人令當時)
 △基督敎 三六(四六)
 △佛敎 一三九(二五八)
 △神道 一六四(二六〇)
 △其他 三一(一五六)
 計 三七〇(七二〇)
 그런데, 減少된 理由는
 新法人法으로의 變更手續을
 全然하지 않은 것도 있고
 申請을 하여도 認證이 되
 지 않은 것(約九〇)도
 있는데, 中에는 단지 免稅
 の手段으로서의 宗教團體
 인 것도 있었다 하나, 특
 히 「其他」의 宗教가 一
 五대이던 것이 約五分之一
 인 三三로 減少된 것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基通)

人事

○田榮澤牧師(本紙主筆) 體
 康不勝으로 休養中 지난
 二十一日 歸國



望臺聲

「주수할
 것은 많
 은데 일
 군이 적
 다」고
 탄식하신
 주님의 말씀은 꼭 지금
 우리 재일교포의 마음
 의 발(心)에 울수 있다
 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에 구주지방을 전
 도장연으로 순행하고 있
 아온 Y.M.C.A 김우현목
 사의 말을 들으면 특히
 그 지방에 일군이 긴급
 히 필요한 것을 느낀다
 가는곳마다 우리 동포들
 이 여간 반가워 하지
 아니하며 특히 「와가마
 같음」에서는 민단지부 단
 장이 일심으로 협력하여
 민단대회 뒤끝에 계속하
 여 집회를 한 결과, 당
 장에 신자가 많이 생겼
 다고 한다.
 ○가는곳마다 많이 나오
 고 특히 「후포오까」(福
 岡)교회에는 남녀청년들
 이 많이 나와서 매우
 유망하다고 한다. 「나가
 사키」(長崎)에도 교회들
 세우고 전도하여야 하겠
 고 「히로시마」(廣島)에도
 세워야겠고 일할데는 많
 은데 일군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다.
 ○지금 우리 재일교포들은
 방향을 못잡고 감정성황하
 고 있는것이니 열었고 힘
 이 있는 일군이 나서 잘
 인도하면 많이 나올것인줄
 안다. 사람이야 일군이야
 돈보다도 일군이야. 좋은
 일군을 보내주소서 좋은
 재일교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原兵器子
使用禁止提案

이 로마제국의 원자력의
평화사용에 관한 요청은
먼저 아이젠하워大統領이
유엔총회에서 한「평화사용
을 위하여 원자력 공출
제도」를 제안한 연설과

司祭된

海外短信

佛教會閉鎖

모스크바에 있는 프랑수아
교회인 루루이교회는 이번
에閉鎖하게 되었다 한다
一九五〇年以來 同教會를
담당하던 라트비아의 司祭

敎國인 이람에서

이. 아람」(세상의 빛)編輯長 소하일·아자리氏가 韓國敎會 非常하였다는 罪로 이스람敎의 監察官에게서 提訴되어 裁判所는 國誌의 發行停止를 命한 것인데, 最近 日越館 裁判所의 主席判事는 下級裁判所의 判決을 破棄하여 國誌의 編輯長을 免訴로 하였다고. 그 理由는 「基督敎徒의 수가 적은 이란에서 이런 記事를 有罪로 認定할 수 없다」하였다. 同誌의 編輯幹部는 「이 判決에 依하여 이란 憲法 및 유엔의 人權宣言에 明示된 權利와 自由를 侵犯하였다」고 말하였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朝鮮美軍政府의 處
理는 信託理論에 依한것으로
로써 對轉財産請求權이 있
다고 주장하는것은 포스트모
宣官을 비롯한 對日平和條
約의 根本精神을 沒却하고
末技안을 分離解釋한 誤論
이라고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또 가령 以上과같은
根本問題를 떠나서라도 日
本이 主張한 배후사이유

地畧	讓受받으	連合國에
對한	財產請求權이	日本
은	分割地	台灣, 樺太, 南
方諸島	上畧	讓受받으
國	中, 蘇, 美	丁에 對하여
請求權을	行使할	것이
分割地畧	讓受받으	것
아니고	自主獨立한	韓國에
對하여서	財產權을	云謂한
다는	것은	도대체
가달일까?	물론	日本이
連合國에	對하여	財產請求

국에서 발생된 것인데, 현재 六十五개국에 회원이 있다. 미국 정부는 본부의 세계적인 사업활동을 원조

權을 云謂吳하고 있는것은
賠償과 의 相殺라는 問題는
있었지만 對日平和條約第二
條와 第四條의 規定때문이다
아니가, 萬一그렇다면 對日
平和條約은 台灣이나 樺太
等과 獨 같이 오히려 順
序에 있어서는 第一먼저,
日本이 朝鮮에 對한 모든
權利, 權原及請求權을 抛棄
한다고 規定한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要聞 日本이主張하는
在韓財産請求權이란것은
早 法的根據가 없다. 萬一
日本의 主張이 理由가
있다고 할수가 있을 때
있다면, 그때는 또 如何
하고 對日平和條約의
假定한 때이다. 또 法
理上은 그만 두어서라도
民國의 生成由來와 現實
을 생각한다면 가령 日本
의 請求權이 法的으로
있다고

하여 작년 중에 二十萬弗 이상의 기부를 하였다 한다. (뉴욕發 I U S I S)

하느레도、오히려 自進해서
拋棄하는 것이 같은 自由
陣營의 道義요、過去를 懷
悔하는 表徵이라고 생각되
다。日本이 이러한 態度를
取해 왔다면 兩國의 國民
感情이 今日과같이 惡化할
理가 萬無이며、曩日問題가
硬化될 理가 萬無이다。日
本이 財産請求權을 固執하
는限 李라이도 王한 嚴在
할것은 事實이다。

(2) 獨立時期問題 日本은 韓國의 獨立은 對日平和條約이 成立된 때이며 其以前에 獨立했다는 것은 國際法違反이라고主張한다. 이問題에 있어서도 日本의 主張은 具體的인問題가 아니라 原則論을 特殊한 韓國獨立問題에도 適用하려는 데서 나온 誤論이다. 萬一 日本의 主張대로 韓國의 獨立이 對日平和條約 成立

時라든 其以前에 韓國의
獨立을 承認한 數十國은
國運을 비웃하며 모두가
日本에 對하여 干涉한 것
이 되며, 國際法上 不法行
爲을 犯한 것이 되니 果
然 그러할가, 물론 印度와
하는 바이다.

英國의 경우는 韓國의 그
거와는 判異하다. 印度는
英國의 獨立承認이 있기
以前에는 獨立宣令을 없었
고, 또 外國은 이에 對
하여 獨立承認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韓國은 日
本の 獨立承認과는 關係없
이 獨立宣令을 있었다.

各 朝鮮의 統治權은 日
本이 亞細亞實業 受贈會
으로 宣明하며 自動的으로
要컨대 李拉因問題의 解
決은 兩國間에 根本的인
政治的妥協없이는 생각할
없으며 그것은 黃通한 바
와같이 日本의 朝鮮가 誠
實性을 表示한 다음에 오
는 問題이다. 最近과같이
當局者들이 實力行使에 云
圖하거나 李拉因 侵犯을
公然히 助成하고因 同拉因
을 曰하 堅固케 할것은
分明하다

立論 前後로든 美蘇軍政
一九四八年八月十五日 大韓
民國의 獨立으로 말미암
完全獨立이 된것이다.
그럼으로 日本이 平和條約
第二條에서 韓國의 獨立
을 承認行爲로서 主權國家
인 大韓民國과 日本國과의
國際法上的 權利義務을 發
生시킨것에 不過하다. 日本
이 韓國의 獨立을 承認하
면 以上에서 觀察을 하겠습
니 그 어긋나기를 보더라도
切實히 要請되는 바는, 日
本이 世界史的段階에 있어
서의 大韓民國의 生成由來
을 充分히 再認識할것과 그
結果로서 마땅히 新生國家
인 大韓民國을 爲主로 하
는 政治的 立場에서 諸國
間에 誠實한 國邦으로서
解決할 態度의 確立이다.

에 一般國際法上의 權利義務이 없었다는 事實에 不過하다. 要컨대 日本의 主張은 가장 重要한 要素宜實을 列치 않고 母國에서 分離한 新生國家는 母國의 獨立承認이 獨立的 要件이라는 一般原則만을 固執한 대서 나온 誤論이다.

(3) 李拉因問題 李拉因이 兩國間에 介在하는 今日의 重要問題임에는 毫疑問이 없다. 曷히 日本側이 重大關心을 가지고서 此는 必要性質을 誇示하려 圖하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大陸棚理論이 아직 國際法上 一定한 基準이 없으니 日本이 主張하는 바와같이 李拉因이 國際法違反이 아닐뿐더러, 具體的 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國際法上的의 새로운 原理이니, 漁業技術의 先進國으로서 他國隣海에서의 天然資源의 獨占이라는 것이 今日의 世界大勢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去의 罪惡을 丕吾도 懺悔함이 없이 傲慢을 早히 逞가 成은 制裁를 주는 時代錯誤도 甚한 陳腐한 法律論으로서 問題는 解決코자 함다. 兩國關係는 이 以上の 事態로 도라가 고 말것이다. 또 韓國側도 歷史의 惡夢에 淪하지 말고 曷히 今日의 國際社會의 要請이 自由陣營의 結合에 있다는 것과 在留同胞의 民生問題를 留意하여 大國民의 禁度도 相對가 乏吳을 削減할 때에 是 서슴치 말고 손을 잡고 나갈 態度가 必要할 것이다. 要컨대 兩當局은 今日의 韓日關係가 얼마나 測量할 없는 有形無形의 損害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留意하여 早速히 善隣友邦의 國交를 確立해야만 될 것이다. 우리는 以上에 指摘한 原因이 하로바 解決되어 兩國間에 平和가 오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筆者는 明大大學院法卒)

轉向하여信仰의길로

元北韓財政工作員

牧師에게指導를呼訴

순진한 사람으로 공산당의 기관적 선전에 속아서 좌익사상에 감화되는 자가 많고, 특히 청년층에 참가하였다가 그 실정을 보고 속은 것을 깨달은 뒤에 돌아서는 이가 가끔 있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와 여기에 그 논거를 실려가 있는것을 소개한다.

이제 우리는 그 성명을 발표하기를 꺼리지만 5월 14일에 북한정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재정공작원」으로 이 땅에 밀항해 들어 왔다가 일본 관헌의 손에 잡혀서 현재 수감중인 데 그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릇된 길을 청산하고 완전히 전향하여 자유세계나라의 한 사람이 되어 현실을 본 아니라 하 나날에 나와서 인생의 바른 길과 살길을 찾고자 신앙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본사사장 오윤태목사에게 지도의 손을 퍼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방당시에 국내가 혼란한 기회를 이용하여 갖은 선전과 모략에 유혹되어

저는 당시 소위 「인민당」에 가입하고 차차 좌익사상에 몰든 결과 북한은 부자나 노동자와 농민이 차별없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상 천국인줄을 알고 동경하고 있던 차에 一九五〇년 6월에 공산군이 남한을 침략하였을 때에 소위 인민위원회 소속한 조선정미소 지배인으로 취직하였다가 국군군이 서울을 탈환할적에 그들을 따라 북조선에 가서 북한에서 그 실정을 본 결과 선전하던 것은 전혀 거짓말이요 인민이나 종교나 그밖에 자유는 조금도 없고 생활필수품은 계급을 따라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비참한 생활은 순전히 노예의 취급을 받고 북노당과 남노당의 차별대우가 심하고 독재적이며 부도덕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수 없

도 이런것을 자백하고 공산당의 악질적인것을 폭로하였고 조선연방제정의 소위 「경제민주화」에서 변호사를 대변하고 왔었다 그것을 거절하였더니 공판정에서 수감되어 작당하여 갖은 협박과 모욕을 당한 일도 있다.

이제 북한정부는 내 원수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반역자가 되었으며 일본정부에서는 일국관리위원으로 직을 받아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었으니 저는 갈 곳이 없고 죽을 길밖에 없는 자라 자살도 못하고 빈민하던중에 저를 예수로 믿고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먼저 사람의 참도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입니다.

兒童說教

어머니를 사랑하신 예수님

요한一九·二六—二七

田榮澤 牧師

사람은 행복스럽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엄마가 아기를 제일 오래 돌보아 주신답니다. 이등안이 벌써 엄마는 제일 잘 돌보고 오래 애기를 잘 돌보고 오래 데리고 있는것도 있답니다. 달같은 것이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 오래지는 못하지요 세 엄마는 내보내고 말지요 물고기는 알만 까면 갈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사람은 참

까이 부인 네사람이 울고 서있답니다. 그가운데 예수님도 계셨답니다. 예수께서 이제 금방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가리키시면서 십자가 밑에 서있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보라 네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남아 있는 동생과 누이도 있는데 어찌하여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이렇지요. 동생들과 누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 했거든요요(부활하신 뒤에는 믿게 되었지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 그것만 보더라도 믿음이 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중한 것인줄을 알수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간절히 생각하셨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물이 저리고 아프신 동안에도 어머니를 믿음있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을 것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평생에도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시었고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어찌하면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그렇지 어머니 말씀들을 잘 듣고 또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것도 좋지만

마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예배당에 잘 가시도록 하는것이 제일 일이지요 믿는것이 제일 귀한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어머니가운데 혹 믿지 아니하는 이가 있으면 꼭 예배당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오시면 울고 졸라서라도 기어히 예배당에 오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하여야 됩니까. 여러분만 믿으니까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얼마나 선명한 일일까 어머니께 예배당에 가시겠다고 집보라고 하시면 집도 보아드리야 합니다.



東京通信 (2)

사쿠라 (八重桜)가 한창차 이었다. 한가한 사랑, 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나가서 봄을 만끽하는 계절을 보내는 모양이건만 우리네야 그럴 팔자가 돼야지요. 날마다 밤에 박한 그 생각이지요. 명승지에는 못가나 「하루도 오노리」 「일본의 봄」 이다 한번 구경가고싶긴마는... 미상불 일본사람들이 남네노소가 아이들 손목을 잡고 꽃구경을 가는것을 보면 「나도 볼국에 가면 한번 저렇게 해보리라」는 생각이 나고 「봄」 이다 한층 심해지지도. 그렇다고 설사 볼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네야 다 파피로제로 있고 아불 죽고 남편 잃어 눈물짓고 애타는이들이 수부한데 그럴 처지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날그날 먹고 살아갈라기에 볼국밖 애들 쓰는 형편인데.

여기는 참 생활의 수준도 꽤 높아지고 사회에서도 점점 자리가 잡히는 모양입니다. 물론 대신평대의사람이 뇌물을 먹어서

全(「오직사건」) (汚職事件) 러서 일을 하고 싶은 조급
으로 남다라. 뒤돌고 미국 한 생각이 나지 않는 주위
정부에서 남태평양 버기니 의 여러가지 형편도 그렇
에서 원자실험을 하는 덕 지하는 워선 내 몸이 말
에 어부들이 그 재를 쓰 을 만들어서 마단이지요
고 온 사건으로 아직도 낫살도 먹었지만 몸이 병
뒤돌고 있고 생활난으로 이 있어서 더구나 마음대
자살하는 사람도 가끔있지 로 일할수가 없구만요.
마는 그래도 대체로 보면 제 몸의 이야기를 하면
재법 살게된 모양이야요 히 늘어놓아 안될지마는
그래도 원만한 사람들은 더구나 소화가 잘 못되어
우유먹고 배터 먹고 집집 서 가끔 먹은뒤가 거북하
이 라디오 놓고 요새는 기 때문에 식사를 마음대로
들리비 전황까지 생경대나 못하고 따라서 식욕이
요. 없어서 음식을 받았다가도 변변히 먹지못하고 내
내의 싸움을 하거나 여 놓는 형편이랍니다. 게다가
요새는 한동안 몇몇의 「산 파다중」이 재벌에서 속이
다 「위계장」이 또 되는가 해서요 그리고 개다가 또
얼마전부터는 기침중이 생 겨서 밤에 잘라면 더 심
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충분히 자지못하니 원기가 없고 마음조차 괴롭고 서
글프지요.

日本 先進 人의生活水準

(主 筆)

자가 어쨌든 일을 당하면 가정재판소에서 처결해주고 불쌍한 처지. 불쌍한 처지가 생겨서 범죄를 하면 그것도 가정재판소에서 말아서 죄감정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빈민이 병이 나면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정신이 부족한 늙은이가 집을 한국에서 「신생활운동」에 일고 나가서 해매는 것을 「공공운동」을 할 의논이나 신문에 광장히 내주고 오 하지요.
세상이 떠들어서 보호해주 어쨌든 죽기 전에 좋은... 이런것을 보면 참 재미나 한데 써노야야 할 부럽군요.
이런 생각을 이방의 통 는... 어디 그것이 신문
포를 위해서나 어서 서를 일어야지요!

나의福音新聞編輯方針에關한 俞長老陳述에對한解答

제임스 이 피시어 박사

첫째로 過去 二年間 俞 眞實性에 대하여서도 長老의 本新聞을 위하여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眞心으로 献身한대 대하여 나는 또한 그가 陳述한 感謝의 意를 表하는 바이다. 敎會의 여러가지 事務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단지 新聞의 發展을 위하여 公 共主義의 立場에 對한 努力과 事務의 能力 異點이 있다는 것을 말하

鄭石圭君

(二八) 慶南 南海 出身 明治大學法學部卒業

우리후 業生들의 푸로필



해방직후에 고향에서 소 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다 가 언제나 동경하는 것은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 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후 우연히 경찰 전문학 교를 졸업하고 얼마 근무 한 후 일본에 오려고 준 비를 다하고 사직을 하려 할때 이번 동란이 터졌던 것입니다. 차마 책임상 사 고싶다. 이 以外の 問題에 대하여서도 俞氏와 나의 사이에는 모든 일이 圓滿 히 進行되고 있으며 또한 나는 本新聞을 위하여 그 의 貴重한 協力が 앞으로 있을것을 믿는 바이다. 우리는 그의 끊임없는 眞實性과 忠誠, 그리고 本新聞의 事務로써의 健實한 事務의 體統을 가진 俞先生을 本新聞社가 가졌다는 것은 자랑이니 할수없다. 俞長老의 論說이 本新聞에 실린후에 그와 나의 個人的으로 談話할수 있는 機會를 가졌으며 그가 敎會의 青年층에 있는 어떤 意見을 表示한줄만 알았디 니 그의 자신의 생각을 全的으로 發表하였다가 것 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의 自身の 생각과 또한 그가 代辯者 로써 나타난 여러분들 생 각에는 迷惑과 誤解를 품 고 있는것같이 느껴지는 바이다. 나도 日本에 있는 韓國사람들이나 또는 日本 사람들이 共產主義의 우리 政治的 精神的 諸理念

과 自由에 對한 危險性을 攄히 認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俞長老의 質問이 「福音 을 傳하는 소위 福音新聞 이라고 부르고 있는 本紙의 內容과 使命이 무엇인 가?」 하는 말이며 그는 그리하여 基督教新聞으로서 이 新聞의 一般의 態度와 方法이 確實히 그리고 分明히 基督教新聞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信念에 대하여서 도 나는 全的으로 俞氏와 同意하는 바이며 또한 本紙의 理念과 目的이 三年 前에 設立된 以來 變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만일 本紙가 가장 깊은 基督教의 理念과 完全히 一致되는 方法과 精神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을 내 가 믿지 않았다면 確實히 나는 本紙에 대하여 아무 일도 관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本紙를 위하여 또 한 本紙와 더불어 내가 일 해 오면서 언제나 이 原理를 念頭에서 사라지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總會公告 創立十週年記念

大傳道會關西地方日程

平野昭原：五月十七日(月)―五月二十日(木) 和歌山：五月二十一日(金)―二十二日(土) 和泉佐野：五月二十四日(月)―二十五日(火) 住之江：五月二十六日(水)―二十七日(木) 大阪：五月二十八日(金)―二十九日(土) 三宮：五月三十一日(月)―六月一日(火) 三宮：六月二日(水)―六月三日(木) 寶塚：六月二日(水)―六月五日(土) 岡山松山：六月七日(月)―六月十五日(土) ○關西地方各敎會에서는 五月十六日(第三主日)에 大傳道會 爲하여 獻金하시기 바랍니다.

自立基金獻金에對하여

五月二日(第一主日) 禮拜獻金 自立基金 獻金하시기 바랍니다. 一、自立基金目標金額 二百萬圓 一、募金方法 (가) 總會內各敎會의 自主的精神으로 財金獻金. (나) 内外有志의 贊助를 얻어 獻金을 募 集. 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 財政局長 金錫昆

바이다. 그러나 대단히 重要한 事實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것이 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基督教의 福音이 各時代와 世代에 變하지는 諸問題와 世代的 變換하여 變하는 罪惡을 取扱하여 變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가 變하는 바에 나섰을 時代의 最大의 罪惡은 유대指導者들의 自慢心과 僥倖心과 排他心 이다. 人間的 自由, 宗教의 自由, 그리고 人生의 自由가 있는데 價値있는 모든 것이 汚穢을 받고 있다. 盲人指導者들을 實地에 遇해한 言詞을 勿論히 는 變했다. 그리스도는 그 들의 罪惡을 지적하였고 또한 그들이 「毒蛇의 子孫」 「惡魔의 子息」等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그들 이 허위의 敎訓者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제 44 시가)
張 曉

— 하다	코한다
	괘한다
	졸한다
	כות한다
	뵈한다
	뵈한다
— 이다	옥인다
	높인다
— 추다	갓춘다
	날춘다

-나다 빛난다
 -거리다 꺼떡거리다
 허떡거리다
 꿈틀거리다
 출렁거리다

순남 여원이 두가 왔는지
 두 물리니
 순남염마 해숙이가 왔어요
 형국 (불라며) 해숙이요?
 정말예요 (생각하다가)
 그렇게 을 해숙이가
 까맣게 소식이 없었어
 요. 그런데 어디 갔어
 요
 순남염마 순남아 너좀 나
 가보아 어딜 갔을가?
 순남 네 (되장)
 형국 시집은 안 간듯합디
 가?
 순남염마 시집은 간것같지
 않아두
 많이 변했두먼요.
 형국 변했어요. 어떻게요?
 순남염마 글씨 뭐라구할까
 못차림이 좀 이상스러
 워. 허기야 요즘 분간
 할수야 없지요. 어쨌든
 지 전에 해숙이대부
 었진않는것같아요.
 형국 어떻게 변했을가 좀
 지않게 변했어요? :
 역시 날 잊지않았기
 찾아 왔재요 어딜 간
 걸까? (초초하여) 나두
 나가 찾아 봐야지 :
 (나가려한다)
 순남 (등장) 한바퀴 돌아봐
 두 안게서요.
 형국 없어?
 순남 저알 큰길까지 나가

朱泰益作

(3)

(戲曲)

詩

비

姜泰吉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떠나 보내고
애달아 하는 비가 와라

마음 허전하여
갓으로 스며드는
고독을 만가니

할 일 없이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종일을 사노라면
무엇을 잊은 듯처럼
아쉬워라

오랫 못이 피어
四月은 아름다운 연
원 누리는 비가 와
비에 젖듯

나의 청춘도
그리움을 못 이겨서
비에 젖어라

형국 해송이가 양갈보를
해: : : 그러누라고 자
넌부터는 편지한장 없
이 자취를 감췄었구나
허허(실성한듯이) :
그래두 한번 보구 싶어
양갈보가 아니라 죽어
써어진 해송이라두 한
번 보구 싶어 송남아!
너 왜 그림 보냈니?
송남(새삼스러이)제가 보
내지 않았어요 잠간
어디 다녀 오신다구

형국 응 그래: : : 그럼 송
남아 그림 어디가면
만날듯한대를 몰라
송남 아까 그림이 나온
골목길을 아는데요
형국 그래, 나와같이 가자
! (송남의 손목을 잡고
바쁘게 나간다 두사람
되장)
송남(마)우두머니 나가는
두사람을 바라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맞춘다
맞춘다
(이상은 그림씨(形容詞)의
중기에 붙어서 움직씨(動
詞)가 된 것)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이상은 움직씨(動詞)가
된 것)

共榮物産株式會社

社長 朴壽虎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神保町一ノ四九

東京韓國學園
生徒募集要項

初等部(男女)

- 第一学年 約五〇名
- 第二学年 約五〇名
- 第三学年 約五〇名
- 第四学年 約五〇名
- 第一学年 滿六才以上

第二学年 小学校一学年修了者
第三学年 小学校二学年修了者
第四学年 小学校三学年修了者
四月十七日
所定用紙に記入提出

出願期日
出願手續
考查方法
考查時日
發表
授業開始
身體検査、面接、書類詮衡
四月十八日 午前九時
四月二十日 午前一〇時
四月二十六日

中等部(男女)

第一学年 約一五〇名
第二学年 約一〇〇名
第一学年 小学校卒業者 또는
今年度卒業予定者

第二学年 中学校一学年修了者
初等部外 各
本學園 所定用紙に記入하여 考查料
五〇〇円 添付提出
初等部外 各
三月二十二日 午前九時 卒

入學者發表
入學資格
募集人員
考查時日
考查方法
出願手續
出願期日

學費(月謝)
初等部 二〇〇円
中等部 三〇〇円
(初等部通用スクールバス購入予定)
西紀一九五四年二月二十二日

東京都新宿区若松町二十一番地

東京韓國學園

電話 (34) 一八五七〇九番